明治天皇御製　謹譯[[1]](#footnote-1)

義

身にあまるおも荷なるとも國の爲人のためならいとはざらなむ

내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라도 나라 위하야 남을 위하야서는 싫여하지 아니하리라。

おのが身はかへりみずして人のため盡すぞひとの務なりける

　제몸을랑은 돌아보지않고서 남을 위하야 힘다함이 사람의 구실인줄 알아라。

　　　　　　　　をりにふれて

をうらみ人をとがむることもあらじわがあやまちを思ひかへさば

　하늘 원망코 남의 탓을 하올줄 바이없으리 이내 몸의 허물을 돌려생각하오면

　　　　　　　　述懷

ひろき世にたつべき人は數ならぬことに心をくだかざらなむ

　널은세상에 나설만한 사람은 하잘것없는 일일래어 마음을 괴롭히지않으리

　　　　　　　　をりにふれて

早苗とるしづが菅笠いにしへの手ぶりおぼえてなつかしきかな

　논에 모내는 農夫의 도롱삿갓 옛날모양을 보는듯한저이고、그리도 情다워라。

　　　　　　　　鏡

國といふくにのかゞみとなるばかりみがけますらを大和だましひ

　나라라하는 나라들의 거울이 도일 만하게 닦아라 사내들아 야야도의 마음을

　　　　　　　　人

かくばかりことしげき世にたへぬべき人をえたるがうれしかりけり

　오늘날 같이 일많은 세상에 견디어나갈 사람을 얻사옴이 깃사온 일이러라

　　　　　　　　農夫

山田もるしづか心はやすからじ種おろすより刈りあぐるまで

　논밭지키는 農夫의 마음 편할날이 없으리 씨를 뿌릴때부터 거둬들이기까지

　　　　　　　　運動

ことしあらば軍のみちにたゝむ身は野をも山をもふみならさなむ

　일있을 때면 싸홈하는 일 맡을 이몸이어든 들에서나 山에서나 달리기 이키리라

　　　　　　　　心

かざらむと思はざりせばなかなかにうるはしからむ人のこゝろは

　꾸미리라는 생각곧 아니하면 어지간히들 아름다왔을 것을 사람의 마음이어

　　　　　　　光陰如矢

思ふことつらぬかむ世はいつならむ射る矢のごとくすぐる月日に

　생각한 일을 일우어지을날이 그 언젤든가 쏜살같이 光陰은 흘러가는데

　　　　　　　　神祇

いつはらぬ神のこゝろをうつせみの世の人みなにうつしてしがな

　거짓이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수없는 온 세상사람의게 다 옴겨나주었으면

　　　　　　　　蟲聲非一

さまざまの蟲の聲にもしられけりいきとしいける物のおもひは

　가지가지의 버러지소리로도 알아볼 것이、목숨있는 萬物의 생각하는 생각을

神祇

わがくには神のすゑなり神祭る昔の手ぶり忘るなよゆめ

　우리나라는 검님의 자손이니 검님위하는 예부터 전하는법 잊을시라 꿈에나

　　　　　　　　をりにふれて

みちみちにつとめいそしむ國民の身をすくやかにあらせてしがな

　제길따라서 맡은일 힘써하는 나랏백성에게 몸성하게 튼튼케 하여주고 싶어라

寄國祝

萬民こゝろあはせて守るなる國にたつ身ぞ嬉しかりける

　모든백성이 마음을 모호아서 지키는나라 이나라에선 이 몸이 기쁨고 기쁠시고

　　　　　　　　夢

たらちねの親のみまへにありとみし夢のをしくも覺めにけるかな

　사모하옵는 어머니를 뫼옵고 있다고 보면 그 꿈이 아깝게도 깨어져 버렸세라

謹譯　香山光郎

1. 『新時代』1941年7月号 [↑](#footnote-ref-1)